

충장로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광주 충장상인회 '충장로 오래된 가게' 발간
'호남상권 1번지' 역사·풍경·상인들 이야기
58개 오래된 가게·4개 금융기관 내력 담아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하던 남양동닭, 취업을 하고 양복을 맞췄던 삼영양복점, 외식을 하기 위해 들렀던 신락원 등...

위에 언급한 가게들의 공통점은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과 충장로에 자리한다는 점이다. 충장로를 호남상권 1번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이 크다는 의미다.

범박하게 말한다면 광주는 충장로의 역사다. (물론 금남로도 이에 못지않다) 광주의 도시 형성과 발전사에 있어 충장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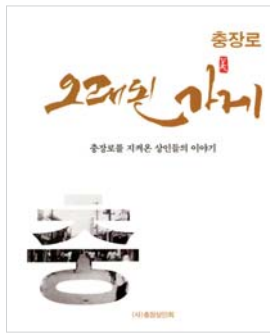
역사적 문헌을 보면 고려시대 축조된 광주읍성은 조선 초기 석성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일제시대 광주읍성이 철거되고 도시가 근대체제로 재편되면서 충장로는 광주의 중심 거리로 부상했다. 알려진 대로 충장로는 충장공 김덕령(1567-1596)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붙여졌다. 임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그를 기려 충장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충장로 명칭은 바로 이에서 연유한다.

충장로에 드리워진 역사를 보면 광주의 근현대사뿐 아니라 내일의 광주를 가늠할 수 있다. 3·1만 세운동이 일어났으며, 1929년 광주학생운동 당시에는 학생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선 곳이었다. 현재의 충장로는 충장로 1가에서 누문동 144번지까지의 1093m에 이르는 도로다.

최근 충장로를 지켜온 상인들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발간돼 화제다. 광주 동구청 지원으로, 충장상인회(회장 여근수)가 발행하고 임인자·황지운이 쓴 '충장로 오래된 가게' (소년의 서간)가 그것. 충장로를 지켜온 상인들의 이야기이자, 30년 이상 가게를 이어오고 있는 주인공들의 삶을 담고 있다.

책에는 58개의 오래된 가게와 4개의 지역은행에 관한 내력 등이 오롯이 담겨 있다. 광주 사람이라면 한번쯤 가봤거나 들었을 법한 가게들이다. 언급된 가게들을 접하고 나면 60-70년대뿐 아니라 80-90년대 충장로 풍경과 도소매 상인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1946년 문을 연 전남의과기제작소, 1960년부터 2대째 운영하고 있는 한양모사, 2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송월타월(대흥상회), 55년간 한자리를 지켜



지난 1989년 충장로5가 입구의 풍경.

온 시계점 백광당, 1세대 광주 패션계의 증인 도미패션, 이불집으로 55년이 된 이브자리 등 소개된 가게들은 오늘의 충장로를 일군 공간들이다.

책 발간 계기는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충장로 5가 번영회를 이끌었던 전병원 회장은 충장로 역사를 기록하고 나아가 오래된 가게를 기념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동판 사업을 동구청과 충장상인회에 제안하기에 이른다.

"동판 사업을 하는 중에 상인들을 만나보니 아카이브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의가 많았습니다. 충장로의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책자로 만들자는 얘기가었어요. 그때쯤 취지에 공감했던 전영원 동구위원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됐구요."

그렇게 해서 아카이브를 위한 책자 제작이 시작됐다. 독립출판물서점 '소년의 서'를 운영하는 임인자 작가와 황지운 씨가 집필자로 나섰다.

이 과정에서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여근수 충장상인회 회장, 정미용 동구의회 의장, 홍기월 동구의회 의원 등의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작년 11월에 시작한 출간작업이 지난 6월에 완료됐다.

여근수 상인회 회장은 "충장로 오래된 가게들은 충장로 역사와 함께한 우리 충장로만의 보배들이라며 '책 발간을 계기로 옛 영광의 충장로의 상징가가 재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책에는 저마다 다양한 사연들이 살아 숨 쉰다. 조부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은 사람, 아버지로부터 시작해 2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사람, 전통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가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각각 색의 사연이 수록돼 있다. 또한 신한은행과 광주는 행, 광주충장신협, 민물장어양식 수산업협동조합 4개 금융기관 내력과 지역사회와의 인연 등도 담겨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950년대 '영안잡화점'으로 시작된 영안반점. 1946년 설립된 전남의과기제작소. 1960년대 후반 도미양장. <왼쪽부터>

광주비엔날레 국영문 온라인저널 '떠오르는 마음' 2호 발행



아나 프라바츠키 작 '열띤 간지럼 태우기'

(재)광주비엔날레가 선보인 제13회 광주비엔날레(2021년 2월26일-5월9일) 국영문 온라인 저널 '떠오르는 마음(Minds Rising)' 제2호가 발행됐다. 웹사이트(www.13thgwangjubennale.org)를 통해 발행되는 '떠오르는 마음'은 전시를 미리 만나고 담론을 형성하는 장이다.

이번 호에는 식민주의, 젠더, 5·18과 여성 등에 관한 에세이와 참여작가 아나 프라바츠키의 두 번째 영상작품이 실렸다.

창간호에서 '멀티마스크' 영상작품을 선보인 아나 프라바츠키는 팬데믹 대응책으로 대두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진실도를 드러내는 신체 접촉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열띤 간지럼 태우기'를 제작했다.

정경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에세이 '진공(眞空)의 역사를 채우는 생명의 시선'에서 광주의 5·18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이 남긴 공동의 역사를 짚어보며 인류학자이자 영화감독인 엘리자베스 포비넬리는 '어느 미국 도시의 문화권 귀중 : 중여, 갑작, 그리고 뻔히 보이는 곳에 숨기'에서 식민주의 잔재가 형성한 현대사회의 토착민 및 유색인종 차별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전한다.

그밖에 큐레이터 요우미는 에세이 '유라시아 지오택션 : 변환의 모델'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유라시아 지역의 신화, 전통, 유물 등의 특성이 현대사회의 제시하는 변화의 모델을 탐구한다. 온라인 구독 신청 가능. 문의 062-608-422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 정신문화 르네상스 문화원 동행사업'

한국학호남진흥원, 31일까지 공모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이종범)은 지방문화원이 기록유산과 문화자원 발굴, 활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 정신문화 르네상스 문화원 동행사업'을 31일까지 공모한다.

구체적인 사업은 '지역 기록유산 조사 및 정리', '지역 역사문화자원 영상자료 제작', '강좌와 기행'이며 내년 5월까지 진행된다.

'지역 기록유산 조사 및 정리' 분야는 신청지역의 미발굴·미정리 대상자료에 대한 조사와 정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영상자료 제작' 분야는 지역의 역사, 생활, 민속, 종교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데 지원한다.

'강좌와 기행' 분야는 역사문화자원 콘텐트를 활용해 현장을 답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한하며 모두 4회 지원한다. 선정된 팀은 내년 5월 31일까지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광주-전남 소재 지방문화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향토사 연구자 및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 등 전문가 및 연구자를 활용해 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

한국학호남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2-603-962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동행, 예술가와 함께 - 아트:광주:20 특별전

광주신세계갤러리, 지역미술계 상생 강부연·노은희·최나래 등 28명 작가 16~27일, 대표작 감상·소장 기회도

'지역 미술인과 함께하는 상생 아트페어.' 코로나 19는 우리 삶 전반을 바꿔놓았다. 문화 예술계 역시 미술관 휴관, 갤러리 전시 취소, 비엔날레와 같은 국제 미술행사의 일일연기 등으로 새로운 도전의 시기를 맞고 있다. 미술 관계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준비된 전시를 온라인 홍보 하거나 디지털 플랫폼을 개설해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등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오는 10월 열리는 광주아트페어(아트:광주:20) 역시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지역 갤러리와 함께하는 프리뷰 전시 등 다채로운 기획을 통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16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와 백화점 중앙광장에서 열리는 지역상생 프로젝트 '아트:광주 20특별전-동행, 예술가와 함께'전은 그 첫번째 프로그램이다.



이미작 'Dreaming Tree'

지역 출신 작가들을 지원하는 '광주신세계미술제', 전남 지역을 작가들과 직접 방문하고 현장 스케치한 작품을 전시하는 '남도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등을 통해 꾸준한 지역 문화예술 후원에 힘을 보태는 광주 신세계갤러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찾아온 삶의 변화와 함께 우리지역 문화예술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미술계를 돕기 위해 이번 특별전을 공동기획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미술품 거래의 장인 광주아

트페어 작품을 미리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에는 서양화, 한국화,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작가 28명의 대표작을 감상하고 직접 소장할 수 있는 기회다. 20대와 30대의 패기 넘치는 작품부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한 60대 작가의 작품까지 다채로운 전시작을 만날 수 있다.

참여작가는 강부연·강동호·강행복·고미음·김기현·김민재·김유민·김진남·노여은·노은희·리일천·



송필용작 '별 헤는 밤'

박화연·방개양·서호석·손연우·송필용·신호재·양나희·양문기·윤석문·윤선중·이·미·임수영·정유승·조하늘·최나래·최·철·홍승원 등이다.

관람 시간 월-목요일 오전 11시-오후 8시(금·일요일 오후 8시30분).

한편 '아트:광주:20'은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두번째 프리뷰전은 오는 9월 광주 예술의 거리 일대 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